



SKT '고객자문단' 출범... 서비스·마케팅 기획 참여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고객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고객자문단의 역할을 고객과 회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채널로 확대하고,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은 상품·서비스와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고객이 겪는 불편 요소를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



하나은행,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하나은행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공이 함께 광주·호남 지역에서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하나은행



iM금융그룹, 시니어 금융교육과정 운영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iM시니어금융대학'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iM사회공헌재단은 노인 인구 증가와 금융환경의 급격한 디지털화로 시니어 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이 심화하는 데 주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iM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시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안산시와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안산시와 지난 16일 안산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제공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 지원 ▲핵심인력 장기채직을 위한 인력사업 협력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

- ◆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황교운
-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연규스님
-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근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 ◆삼진제약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부음

▲이재민씨 별세, 이경호(전 충청타임즈 기자)씨 부친상=17일 오전 4시30분, 빈소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66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43-210-5444.

# '삼성 아트 스토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컬렉션 선배

삼성전자, 현대미술 명작 34점 공개  
마티스·폴록·칼로 대표작 포함  
아트 스토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TV 아트구독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의 작품을 담은 'SFMOMA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SFMOMA는 미국 서부 최초의 현대 미술관으로 20세기 회화와 조각, 사진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공개된 'SFMOMA 컬렉션'은 앙리 마티스, 잭슨 폴록, 프리다 칼로, 피에트 몬드리안 등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 34점으로 구성됐다.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 ▲잭슨 폴록의 '비밀의 수호자' ▲프리다 칼로의 '프리다와 디아고 리베라'



삼성 TV만의 아트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Femme au chapeau, 1905)'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라' ▲디에고 리베라의 '꽃 바구니를 든 사람' ▲피에트 몬드리안의 '뉴욕 시티 2' ▲웨인 티보의 '진열된 케이크' 등 20세기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상징적인 작품들이 포함됐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미국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웨인 티보의 작품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삼성 아트 스토어의

현대 미술 컬렉션의 깊이와 다양성이 한층 넓어졌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 세계 115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다.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오르세 미술관, 아트 비젤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800명 이상의 작가들의 5000점 이상의 방대한

작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TV 라인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삼성 아트 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며 거실을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갤러리로 바꿔 나가고 있다.

예술 작품 감상에 특화된 '더 프레임 프로', '더 프레임' TV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GB, OLED(S95H 모델), 네오 QLED 및 일부 QLED TV 시리즈까지 확대하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감성까지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안희영 상무는 "전세계 거실에서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관들과의 협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참가단체 모집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착수

### SK이노베이션

9월 코엑스서 본선 무대  
내달 21일까지 예선 접수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GMF)'가 오는 9월 본선 무대를 앞두고 예선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GMF는 2017년 SK이노베이션의 후원으로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다.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자립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고 SK이노베이션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2019년부터는 대상 수상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예선 접수는 다음달 21일까지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클래식 또는 실용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발달장애인 연주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예선 참가단체 모집 포스터. /SK이노베이션

본선 공연은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대상 1팀을 포함한 6개 팀에 총상금 2100만원이 수여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GMF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잡아왔다"며 "올해도 참가자들이 각자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과기정통부, 개선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파 규제 개선에 관

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의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총 5명을 선정한다.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전문가와 기업 등 전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김서현 기자 seoh@

## 웅진그룹, 부천시 도서관에 아동도서 기부

### 어린이 독서권 보장위한 활동 지속

웅진그룹이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도서관 26곳에 어린이 전집 2만6000여 권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17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지난해 그룹과 부천시가 지역 아동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자회사 웅진씽크빅을 통해 어린이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한 데 이어 올해는 전집 1020세트, 약 2만 6000여 권을 추가로 지원했다.

부천시는 전달받은 도서를 시립도서관 11곳과 작은도서관 15곳 등 총

26곳에 배부하고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기부 도서는 웅진씽크빅의 '웅진북클럽 바이백' 서비스를 통해 회수한 도서로 마련됐다. 소비자가 구매한 전집을 일정 기간 이용한 뒤 반환하면 보상에 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수된 도서는 재생용지로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독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월 열린 전북 완주군 소재 '구미오막 작은도서관' 개관식에서 (왼쪽 여섯번째부터) 남기홍 KB국민은행 충청·호남3(전주)지역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 'KB작은도서관' 전국 143곳으로 확대

### KB국민은행 9곳 추가 건립

KB국민은행은 올해까지 143곳의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전국 어디서나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KB작은도서관은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과 문화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건립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KB작은도서관 134곳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장성군 ▲경

남 김해시 ▲광주 광산구 등 전국 9곳에 친환경 원목을 활용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하고 '찾아가는 책버스', '전자도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